

# 설 앞두고 배추 등 농산물 1만1천t 쏟아

### 농식품부, 배·귤 값 전년비 30%·23% ↑...지원 확대 토마토·계란은 주요산지 출하량 증가로 수급 안정화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광주 지역 배추 소매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한 포기 4천613원으로 1년 전(3천163원)보다 45.84% 비싸고 평년(3천754원)보다 22.88% 높다.

무는 한 개에 2천910원으로 1년 전(1천807원), 평년(2천99원)과 비교해 각각 64.04%, 38.63% 비싸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와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비축 등 정부 가용물량 1만1천(t)을 하루 20t 이상씩 방출하며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0%) 적용을 추진하고, 무 할당관세(0%)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배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계약재배물량 1만t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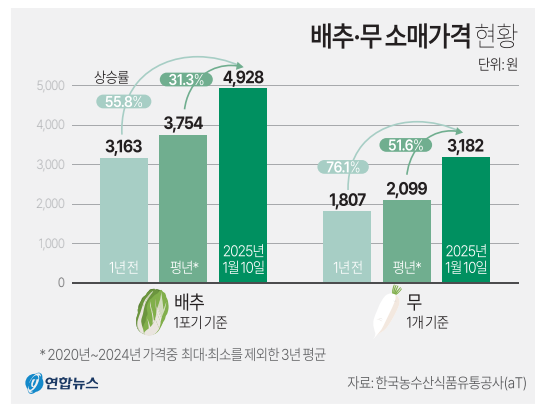
배의 경우 작년 폭염 피해 등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 유통 물량이 적어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으며 광주 지역 신고 배 10개에 4만3천800원으로 1년 전(3만3천81원), 평년(3만3천984원)보다 각각 30.04%, 28.88% 비싸다.

농식품부는 수요 분산을 위해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와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제수용 배 낱개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출하되는 만큼 만감류를 중심으로 실속형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통해 감귤 가격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성수품은 아니지만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감귤은 광주 기준 10개에 5천 277원으로 1년 전(4천279원), 평년(2천 942원)보다 각각 23.32%, 79.36% 비싸다.

농식품부는 지난 주 눈 영향으로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 주 출하되면서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마토는 지난달부터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철 주요 출하지에서 생육이 양호해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계란 도매·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47%, 83% 하락했으며 돼지고기는 가격이 유독 낮았던 작년 1월과 비교하면 가격이 높지만 수급은 안정적이다. /안태호기자



친환경 패키지 명절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친환경 패키지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사진은 친환경 패키지 명절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 제공>

## 롯데백 광주점, '푸른 뱀의 해' 골드바 선봬

### 100g 이상 구매 시 상품권 증정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층 골든듀 매장에서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이해 '뱀 골드바'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희망과 지혜를 상징하는 해인 을사년을 기념해 제작된 뱀 골드바는 2K 순금으로 100g과 37.5g 두 가지 중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사진〉 뱀 골드바와 일반 골드바 100g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도 1월30일까지 진행한다. /정은솔기자

는 사은행 사도 1월30일까지 /정은솔기자

## 국산 둔갑 수입 제수·선물용품 '꼼작마'

### 관세청 24일까지 집중 단속

관세청은 24일까지 2주간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장식품·다과 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단속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74.8%

### 시캠페인 이후 상승...공제로 60% 최대 12만원 지원

광주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광주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는 916개소, 가입률은 34.3%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이전인 2023년 12월 말 798개소 27.5%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다. 또 서울 24.3%, 부산 23.8%

%, 대구 29.4%, 세종 22.8%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민간화재보험 가입 점포를 합산하면 광주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74.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이후 상인들의 화재 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24개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을 펼쳤다. 설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찾아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건을 설명하는 등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했다.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로 60%(시비 30%, 구비 30%)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

장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 상인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설 연휴 이용객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지자체와 상인회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관리·화재 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주재희 광주시경제창업국장은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상인의 생계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농관원, 친환경인증 허위 광고 농식품 단속

### 오는 27일까지 선물·제수용 유통 현황 점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선물·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 유통 현황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속여 팔거나 허위·과장 광고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대형유통업체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해 인증품 여부

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거짓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부터는 전문단속반을 편성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 무료 드립니다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